

장보고에 관한 소설 '해신(海神)'을 썼던 작가 최인호가 해상왕의 흔적을 찾아나섰다. 특히 그는 장보고가 일본 전국시대 영웅 다케다 신겐 가문의 수호신이라는 설을 추적한다.

# 日 '신라명신좌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형상

### 소설가 최인호씨, '海神행적추적' KBS다큐서 밝혀

다케다 신겐 가문의 시조는 일본 오츠시에 위치한 불상 '신라명신좌상'의 위용에 반해 성(姓)을 '신라'로 바꿔 '신라 사부로'로 개명했다. 그런데 '신라명신좌상'은 바로 장보고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고 한다.

최인호는 1년 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오만 그리스 이집트 등 7개 국가를 두루 돌며 18일까지 방

쫓다. 일본으로 돌아온 엔친이 자신을 구해준 해신을 형상화해 만든 것이 바로 '신라명신좌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신라명신이라 말한 그 해신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신라 장보고를 수호신으로 추앙하는 다케다 신겐 가문의 비밀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 '사카모토' 마을의 사찰을 찾은 최인호 작가.

### 전통 일본인모습 아닌

### 삼각관 쓴 독특한 형상

영하는 KBS 1TV 다큐멘터리 5부작 '최인호의 다크로망 해신 장보고'(토-일요일 밤 8시)를 통해 세계 각국에 남아있는 장보고의 흔적을 밝혀낸다.

1부에 등장했던 불상 '신라명신좌상'을 모시고 있는 오츠시의 '신라선신당' 주변은 일본으로 건너간 한민족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 '신라선신당'에 얽힌 설화가 자못 흥미롭다.

이 절 장건주인 엔친 스님이 당나라에 불법을 구하러 갔다 돌아오다 신라 인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갑자기 신라명신이 나타나 구해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 제작진은 이번에 지금까지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일본 국보 '신라명신좌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빨간 눈에 흰 얼굴, 삼각관을 쓰고 있는 길이 78cm 정도의 이 목상은 한눈에 봐도 전통적인 일본인의 모습이 아닌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엔친이 신라인 도현에게 써 준 송별시가 등장한다. 제작진은 엔친의 바닷길을 안내한 신라인 도현이 바로 장보고 선단의 일본측 책임자라는 사실도 입증한다.

특히 18일 방영될 '역사는 흐른다' 편에서는 신라 조정간의 갈등속

### '적산법화원 창건' 밝혀

### 암살배경, 영향도 조명

에 암살 당하는 장보고와 그의 사후 우리역사에 미친 영향, 장보고의 현재 재적 의미를 조명한다.

신재국 PD는 "이번 프로에서 중국에 대사찰을 세우고 신라불교를 개혁했던 종교 사상가이자 노예해방을 실천했던 인본주의자 등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장보고의 면모가 소개된다"며 "특히 최근까지 엔친이 지은절로 알려졌던 중국 산둥반도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창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취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 불교적 정신세계 작품 곳곳에 녹아

### 오지호 특별전 6월까지

한국 서양화의 선구자이며 지난해 문화관광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은 오지호씨(1905~1982)특별전이 6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작품 총 31점이 선보인다. 전시품을 대부분은 1985년 유족이 기증한 대표작으로, 그를 통해 한국 구상회화와 인상주의 예술세계를 살필 수 있는 기회이다.



◇오지호 작 '광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화'

1980년대 말까지 그의 예술 세계를 네 시기로 나눠 보여준다. 침울한 색조를 중심으로 초기작을 선보였던 '실험적 모색기(1920년대)'와 '남향집' 등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정착시킨 '한국적 인상주의의 정착기(1930, 1940년대)',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한 '단순화한 자연(1950, 1960년대)', 유럽여행을 떠나 유럽 풍경을 소재로 다수의 작품을 남긴

'이국의 정취(1970, 1980년대)'가 그것이다.

윤범모 경원대 교수는 "오지호 화백은 1954년 광주 원효사 아미타후불탱화를 그렸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다"며 "불교적인 그림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자연을 평소 사랑하며 화폭에 옮긴 물아일체의 정신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02)2188-6331



### '거룩한 만남' 6백회 특집 기념행사

불교방송(사장 김규철)은 6월 3층 대법당에서 '거룩한 만남' 6백회 특집 기념 행사 및 공개방송을 열었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비롯해 청와대 불자회 김상남 회장,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부인 권양숙 여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수해자 가족의 음성 편지 낭송, 역대 진행자 인터뷰, 국악인 신영희 씨 공연, 저서력인과의 자매 결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가수 장사익씨가 음성공양하는 모습. 강유신 기자

## 소격동 '티베트 박물관' 개관 1주년

### 불상등 13~20세기유물 600여점 전시



◇'지(持)금강불'이 봉안돼 있는 티베트박물관의 불교미술실 내부전경.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있는 티베트 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20여년간 세계 곳곳의 민속품을 수집해 온 신영수 관장이 지난해 가정집을 개조해 박물관을 열었다.

티베트 박물관은 아직 1년밖에 안됐지만 입소문을 통해 하루 평균 1백여명이 찾아올 정도로 문화매니아

### 2008년 포천에 3천평규모 박물관 계획

들 사이에선 이제 제법 유명 명소가 됐다.

티베트인들의 불교미술뿐 아니라 일상생활품 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티베트박물관은 1·2층 합해 총 60

평 규모다. 불교미술관, 생활용품관, 복식관 등 크게 세 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박물관에는 천장(天葬)·조상과 유사한 티베트의 전통장례) 사진과 인골(人骨) 공양 그릇에서부터 라마승의 법복과 각종 불상에 이르기까지 13~20세기의 유물 6백여점이 전시돼 있다.

특히 불교미술관에 들어서면 '지(持)금강불'이 15세기와 18세기 것이 두개 봉안돼 있는데, 양식이 서로 달라 꼼꼼히 비교하며 감상하면 관람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신관장이 총 유물 1천2백여점을 소장하고

있지만 박물관이 비좁아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2008년 집근처인 경기도 포천에 3천평 규모의 박물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다.

독실한 불자인 신영수 관장은 "92년 네팔친구와 함께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라다크를 지나게 됐는데 우리 탕화에 영향을 준 탕카와 복식의 화려한 색깔에 매료돼 티베트 유물에 빠지게 됐다"며 "특히 딱딱한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 사는 도시인들에게 하늘 가까운 곳에서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해 가는 티베트인들의 신앙생활과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02)735-8149

김주일 기자

### 다도·민요배우기 등

### 삼청각 겨울문화특강

하기, 장구와 민요 등 우리가락 배우기, 발렌타인때 선물할 보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특히 평일날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주말여행'반을 개설한다.

예비신부들을 위한 규방문화특강도 이채롭다. '혼례와 함께하는 규방공예'란 주제로 △18일 예단보 제작 △25일 혼서지보 만들기 △2월 15일 기러기보 짜기 △2월 22일 수저집 1쌍 재단하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3676-3456